

김석동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인물 탐구 김철

전답 팔아 독립운동 자금...상하이 임정서 최다 직책 맡아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일강(一江) 김철 선생은 1886년 전남 함평의 부농 집안에서 4남 1녀 중 3남으로 태어났다. 고향에서 한학을 공부하다 22세 때인 1908년 영광의 광홍 학교에서 수학하고 서울로 가서 1912년 법관 양성소에서 공부한 후 일본 메이지대 법학부를 졸업했다. 1915년 귀국해 고향에 은거하던 중 일제의 압박과 회유에 맞서 중국 망명을 결심한다.

1917년 상하이에 도착한 선생은 이듬해 여운형·장덕수 등과 함께 최초의 근대 정당 '신한청년당'을 조직해 독립운동에 나서게 된다. 신한청년당은 미국 윌슨 대통령에게 대한 자주독립을 요청하고, 1919년 파리강화회의에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하는 등 외교 독립 노선의 중심에 섰다. 선생은 국내에 밀파돼 전남 영광에서 은신하면서 고향의 전답 등 재산을 처분하는 등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했고 서울로 가서는 천도교 측 자금 지원도 받았다. 이러한 동향을 감지한 일제는 독립운동자금 모금을 문제 삼아 관련 인사들을 체포해 기소했고, 상하이로 돌아와 체포를 면한 선생은 권석재판에서 5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선생의 활동이 전남 지역에 널리 알려지게 됐다.

1919년 국내 3·1운동 후 각지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이 상하이에 모여 '대한독립 임시 사무소'를 설립한 후 임시정부를 조직해 나갔고 선생은 재무를 담당하는 등 신한청년당이 임정 수립의 주축이 됐다. 그해 4월 10일 임시 의정원 제1회 회의에서 선생은 29명의 의원 중 전라도의원으로 선출됐고 임시정부가 조직되면서 재무부 위원에 선임됐다. 이어 교통차장으로 임명되어 국내와 임정의 연결에 나섰고 이듬해 김구 등과 함께 일제 기관 습격 등 국내 활동을 위한 '대한독립의용단'을 조직했다. 국내 활동을 관장하는 지방 선전부에서도 부총판을 맡았으며 육군무관학교 교관도 겸임하는 등 다방면으로 임정 활동에 참여했다. 1921년 이후 상하이 교민단의 단장을 맡는 등 항저우로 옮기기 전까지 10년간 교민들의 생활·치안·보호에도 나섰다.

상하이 임정 건물 본인 명의로 임차

1921년 각 계파간의 독립 투쟁 노선 대립으로 인해 혼란과 정쟁에 휩싸이면서 임정은 독립운동 총지도기관으로서의 역할이 크게 위축됐다. 이에 독립운동의 통일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지의 독립운동세력들이 모여 '국민대표회의'를 준비하면서 선생은 발기인과 회계를 차례로 맡았다. 이 과정에서 임정의 체제를 개편하자는 개조파와 임정 해체 후 새로 정부를 세우자는 창조파 간에 의견이 대립했고 끝내 회의가 결렬되면서 임정의 위상은 더욱 약화됐다. 선생은 국민대표회의와 임정 간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국민대표회의의 결렬 후 1924년 박은식을 국무총리로 개조파 내각이 들어섰다. 선생은 회계검사원 검사장에 임명되어 초기 혼란을 수습하고 임정 안정의 기틀을 닦았다.

1925년 박은식이 제2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자 선생은 외무총장을 맡았다. 그해 박은식 사망 후 임정은 내각책임제를 채택하고 이상룡에 이어 1926년 김구가 국무령으로 취임했고 선생은 국무원, 법무장, 헌법개정기초위원회 등을 두루 맡아 임정을 지켰다. 1927년 임정은 제3차 개헌을 통해 국무위원(5~11인)으로 구성된 국무회의를 의사 결정 기구로 하는 국무위원회제를 채택해 1940년까지 유지하게 된다. 새 헌법에 따라 선생(군무)과 이동녕

부농 집안서 태어나 메이지대 졸업
일제 회유 맞서 중국 상하이로 망명

여운형·장덕수와 신한청년당 조직
상하이 임시정부 외무총장 등 활동

1932년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 석방
금성 폐렴으로 항저우서 48세 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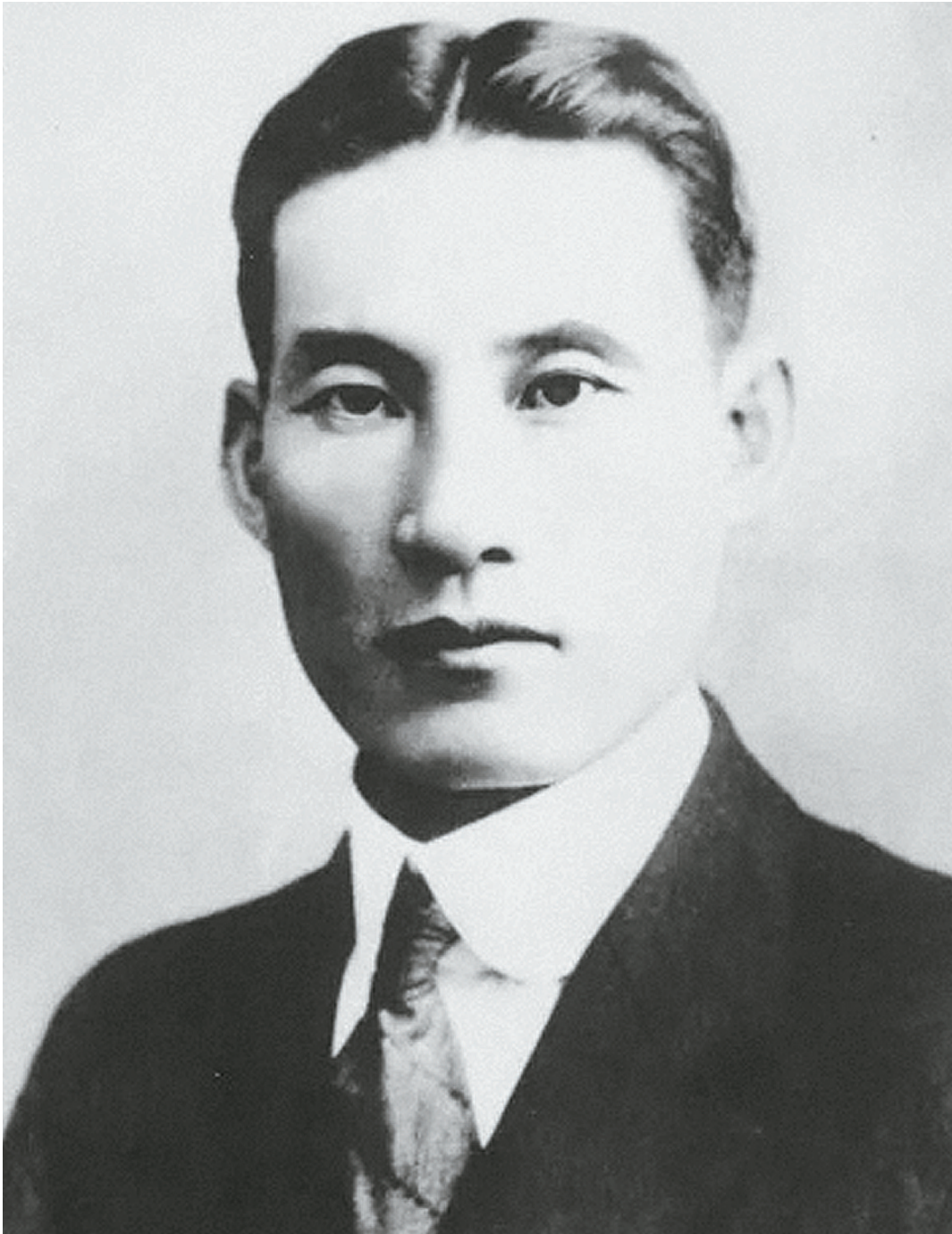
호남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일강(WbJ) 김철 선생의 삶을 적 사진. <사진 일강김철선생기념관>

(법무), 김구(내무) 등 5인이 내각을 구성하게 된다. 당시 임정은 선생의 명의로 빌린 상하이에 있는 건물을 청사로 사용했다.

신한청년당은 임정 수립 후 해체됐다가 1925년 김규식과 선생이 각각 이사장과 이사로 선임되어 임정을 뒷받침하게 된다. 이후 분열된 독립운동계 통합을 위해 유일당운동이 일어나면서 선생은 이동녕·김구 등과 함께 1927년 좌·우익 대표 24명으로 구성된 '한국유일독립당상해촉성회' 집행 위원으로 선임됐다. 그러나 만주의 사회혁명 진영 인사들이 1929년 촉성회의 해체를 선언하고 조선혁명당



전남 함평에 있는 일강김철선생기념관(왼쪽). 1919년 상하이 임시정부 국무원 시절 사진. 뒷줄 왼쪽 첫째가 김철 선생이다.



을 조직하자 상하이의 민족주의 진영 인사들은 1930년 한국독립당을 결성했다. 선생은 한국독립당 창당에 참여해 여당으로서 임정을 지지하고 지원했다. 한국독립당은 이후 조직 변질을 거쳐 1940년 한국국민당,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등 3당이 새로운 한국독립당으로 통합되어 민족운동 대표 정당으로 탄생하게 된다.

1925년 선생의 첫 번째 아내가 사망한다. 선생은 1919년 독립운동자금 모금을 위해 잠시 귀국했으나 이후 일제의 감시 대상자가 되어 귀국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자 아내에게 이혼 후 국내에서 재혼할

것을 권유했으나 아내의 조상의 묘소와 사당을 돌보며 지내다 집 뒤 소나무에 목을 매 순절했다. 전남 함평에 그 소나무가 아직 남아있고 '단심송'이라 이름 지어졌다. 한편 중국에서 재혼한 아내 최혜순은 광주 독립병원 간호사로 일하다 상하이로 건너가 병원을 운영하며 독립운동을 지원했고, 애국부인회 등에서 활동하면서 임시 의정원의 전라도의원으로도 선출됐다.

1931년 선생은 김구와 함께 일제 요인 암살 및 기관 파괴활동을 목표로 하는 '한인애국단'을 조직했고 이듬해 1월 이봉창 의사 의거가 일어났다. 일



<사진 일강김철선생기념관>

왕 히로히토에 대한 수류탄 투척이 실패로 끝나고 이 의사는 이치가야 형무소에서 사형 당한다. 의거 후 상하이 일본 총영사관은 선생과 김구 등을 체포하려 했으나 프랑스 조계에 있어 체포를 면했다. 3개월 후 한인애국단원 윤봉길이가 일본 천장절 및 전승 기념식이 열리는 상해 홍콩우공원에서 폭탄을 투척해 일본파견 군대장 등 요인을 살상하고 체포되어 오사카 가나자 형무소에서 사형 당했다. 두 의사의 의거로 상하이 임정은 독립운동의 중심 세력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일경은 김구와 선생 등 임정 간부들에 수배령을 내렸고 이들은 더 이상 상하이에 머물기 어려워져자 항저우로 임정을 이전하게 됐다. 항저우 이전 후 국무회의에서 선생은 군무부장에서 재무부장으로, 김구는 재무부장에서 군무부장으로 직책을 바꾸었다.

임시정부·국민대표회의의 갈등 조정 전력

1932년 임정은 인사·재정 및 노선에 심각한 내분 끝에 '항저우 사건'이 일어나면서 선생 측과 김구 측의 갈등이 심화됐고 실망한 선생과 부인은 임시 의정원에 사직원을 제출했으나 반려됐다. 그해 말 선생은 상하이 프랑스 조계의 중국인 지인 집에서 일경에 체포되어 일본 영사관에 감금 당한다. 중국과 프랑스 측이 중국에 귀화한 선생에 대한 조계 내 체포가 불법이라고 강경하게 항의했고 선생은 고문 끝에 석방되었다. 동아일보는 1932년 12월 5일자 신문에 이 사건을 보도하며 선생의 독립운동 활동 상황을 국내에 알렸다.

항저우사건 후 선생은 이동녕 등과 함께 재건운동을 전개하고 김구 등과의 화합을 추진하는 등 임정의 재건과 통합에 진력했다. 임시 의정원은 1933년 선생을 전라도의원으로 선출하고 김규식·양기탁·조성환 등과 함께 국무위원(11인)으로 선출했다. 이후 선생은 임시 의정원에서 상임위원(7인)으로 선출된 데 이어 임정의 무임소국무위원, 국무회의 비서장으로 선출돼 임정을 지키는 중심 역할을 했다.

각지를 전전하며 몸을 사리지 못하고 독립운동에 전념하던 선생은 쇠진해진 끝에 급성 폐렴에 걸려 항저우 광자병원에서 치료중 향년 48세를 일기로 순국했다. 김두봉·양기탁·이시영 등 임정 요인들은 선생의 장례를 치르고 유해를 항저우 서호 부근 묘지에 안장했다. 지금은 이곳에 아파트가 들어서 묘소를 찾을 길이 없다. 선생의 순국 후 임정은 자상-전장-광저우-류저우-치장 등지를 8년간 떠돌다 1940년 충칭에 정착한다. 충칭의 임정은 민족주의 세력을 규합해 한국독립당을 창당하고 좌우가 연합해 한국광복군을 조직하게 된다. 상하이 임정 역사에서 가장 많은 직책을 맡았던 선생은 임정 지킴이로서 역할을 다했다.

순국 60년 후 고향에 송모비가 세워지면서 선생은 한 줌 흙으로 돌아와 안장됐다. 1962년 대한민국 정부는 건국훈장독립장을 추서했다. 아내 최혜순은 상하이에 남아 독립운동가들을 도왔고 귀국 후 1976년 사망했다. 후일 선생과 합장됐고 2010년 건국훈장에국장이 추서됐다. 전남 함평에 선생의 기념관이 건립됐다.

<광주일보와 중앙 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김석동 2007~2008년 재정경제부 제1차관을 거쳐, 2011~2013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했다. 현재 지평인문사회연구소 대표로 있다. 지은 책으로는 '김석동의 한민족 DNA를 찾아서'가 있으며, 오랜 경제전문가로서 직장인들의 팍팍한 주머니 사정을 감안해 가성비 좋은 서울의 노포 맛집을 소개한 '한 끼 식사 행복'이 있다.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KSA 한국표준협회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세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2) 227-9940

062) 227-9970

02) 765-9940

061) 752-9940